

'95년도 제1차 이사회가 2월 27일 월요일 6시 30분 신라호텔 Prado룸에서 열렸다. 김집 고문, 박양실 감사, 최강원, 김모임 부회장, 김준명, 박정희, 박종호(허영섭 이사 대리)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이사회회의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94년도 회계결산보고

박양실 감사가 "협회는 정부 회계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자체 경리규정과 예산회계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기말현재의 재무상태와 수지결과 및 제 예금 명세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인정한다"는 내용의 감사보고를 했다.

2. 협회 창립기념일

협회의 창립기념일을 작년에는 창립대회를 했던 10월 7일에 맞추어 기념식을 개최하였으며, 이 밖에 관련된 날짜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사단법인으로 허가한 날이 5월 6일이며 5월 13일이 법원에 등록된 날짜로 세 개가 있다. 그러나 10월 7일은 계절적으로 가장 바쁘고 다른 행사가 많은 달이며 콘행사를 두 번 연속하여 치루게 됨으로써 힘들기도 하지만 홍보효과가 반감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10월달을 피해 5월 13일로 변경하자는 의견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3. 정기총회

세계 에이즈의 날 당일에 행사에 앞서 개최하도록 하는데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4. 임원 회비 납부

에이즈 예방 및 퇴치 운동에 앞장 서서 일을 맡고 있는 임원들이 협회의 세입을 돕고 참여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측면에서 1년에 10만원 이상의 회비를 내자는 의견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5. 지부 결성

시도지부를 전국에 다 결성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과 자금이 소요됨으로 기존 보건단체의 시도지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부결성문제를 운영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임원 동정

김집(경기고동창회장) 고문은 올림피아공원에서 '제5회 경기가족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백혈병어린이돕기성금을 모집했다.

박건배(해태그룹 회장) 고문은 연세대학교 의료원 암센터에 연구기금 2억원을 기증했다. 이 연구기금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에 설치, 운영중인 해태-송당 암연구소의 연구비로 활용된다.

이길여(길병원 이사장) 고문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서 심장센터 개원식을 갖고 이틀간 중앙길병원 대강당에서 심장질환의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빙해 개원기념 '제1회 국제 심혈관중재술실연 심포지움'을 열었다.

김모임(연세대 보건대학원장) 부회장은 한국과학기자클럽과 공동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1세기 보건의료와 언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또한 "일차건강관리를 위한 김-Sasakawa 장학사업"에 대한 사사카와재단의 지원기금 전달식이 연세대 총장실에서 열렸다. 연세대 간호대학에서 운영하게 될 김-Sasakawa 사업은 김모임 보건대학원장이 지난해 5월 스위스 체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보건기구총회에서 수상한 사사카와 보건상의 부상 3만불을 전액 장학사업으로 회사한테 대해 사사카와 재단측이 1천만엔을 추가제안해줌에 따라 공동사업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장학사업은 국제간호협의회회장으로서 세계 인류의 건강을 이룩하기 위한 일차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보급하고 한국의 일차건강관리에 공헌한 김모임 박사의 업적을 기려 앞으로 일차건강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간호사를 배출하는데 초점을 맞춰 운영될 계획이다.